

# 국제사회 부글부글... '가자 구호트럭 참사' 진상조사 압박

### 프랑스, 독립조사 촉구... 영국 "긴급조사·책임규명 필요" 부상자 80% 총상... 미국은 이스라엘 자체조사 힘 실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이 구호 트럭에 몰려든 민간인 수백 명이 사상하는 참사가 발생한 데 대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이번 참사는 멈추지 않는 전쟁으로 인한 가자지구의 처참한 인도주의적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 지역에 대한 구호품 보급을 즉각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9일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 구호품을 실은 트럭에 몰려든 팔레스타인 주민 100여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경고사격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대부분이 압사했거나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고 설명했으나, 팔레스타인인은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발포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 발생지의 한 병원에서 이송된

부상자의 80% 이상이 총상을 입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가자 북부의 알 아우다 병원의 모하메드 살라 병원장은 지난 2일 AP통신에 이 병원으로 이송된 176명 중 142명이 총상을 입었고 34명이 압박으로 인한 부상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하마스 측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번 사건으로 112명이 사망하고 7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발표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목격자들과 일부 부상자들은 이스라엘군이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해 공포를 불러일으켰다고 증언했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에서 구호 트럭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죽음은 끔찍했다"며 긴급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구호식량 기다리는 어린이들 이스라엘의 계속된 폭격으로 이미 감당 할 수 없는 극심한 굶주림과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어린이들이 구호식량 배급을 기다리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민간인이 이스라엘군의 표적이 된 가자지구에서 나온 사진에 깊이 분노한다"며 "이런 충격을 가장 강하게 규탄

하며 진실, 정의, 국제법 준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스테판 세주르네 프랑스 외무장관도 "인도적 상황은 재앙적이었고 지금 발

생한 일은 방어할 수도, 정당화할 수도 없다"며 유엔의 독립 조사 요구를 지지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도

이번 사건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설명'을 요구하며 인질 석방과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를 위한 휴전을 촉구했다.

국제 구호단체들의 규탄 목소리도 계속됐다.

난민 지원단체인 국제난민은 성명을 통해 "가족을 위해 구호품을 받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민간인들을 죽이는 일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이스라엘의 맹방인 미국도 진상 파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독립 조사가 아닌 이스라엘 정부의 자체 조사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정부에 조사를 요구했다"며 "그들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당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홍해 환경재앙... 후티 공격 받은 화물선 침몰

### 비료·기름 유출 해양생물 생존 위협

지난달 홍해에서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공격을 받은 영국 소유 벌크선 루비마르호가 결국 침몰하면서 환경재앙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후티의 상선 공격으로 선박이 침몰하기는 처음이다.



홍해서 침몰하는 루비마르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예멘 정부의 아흐메드 아와드 빈무바라크 외무장관은 "루비마르호 침몰은 예멘과 그 지역이 과거 경험하지 않은 환경 재앙"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미군 중부사령부도 지난달 24일 "루비마르호의 손상으로 바다에 약 20km에 달하는 기름띠가 형성됐다"며 "루비마르호는 공격받을 당시 4만1천이 넘는 비료를 운송 중이었는데 이것이 홍해로 유출될 수 있고 환경재앙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벨리즈 선적으로 영국에 등록된 루

비마르호는 지난달 18일 홍해와 아덴 만을 연결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후티의 공격을 받은 뒤 서서히 바다에 가라앉았다.

외신은 루비마르호 침몰에 따른 기름과 비료의 유출이 홍해 해양생물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고 주변국에 직접적 피해를 준다고 분석했다.

요르단대에서 해양과학을 연구하는 알리 알사왈미는 홍해에서 루비마르호의 대규모 비료 유출이 해양 생물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비료로 인한 영양분 과다가 조류(藻

類·물속에 사는 식물)를 지나치게 증식시키고 조류가 바닷속 산소를 많이 쓰면 해양생물이 살 수 없다고 그는 설명했다.

홍해는 세계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산호초와 해안의 열대 나무, 다양한 해양생물로 유명하다.

루비마르호가 유출한 기름의 양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탈비는 7천 배럴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후티는 루비마르호 침몰의 책임이 영국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연합뉴스

## 짐바브웨 대통령 전용기 폭파 위협에 회항 소동

남부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대통령을 태운 항공기가 공항 폭파 위협에 회항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2일 (현지시간) 현지매체에 따르면 에머슨 음낭가과 짐바브웨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가 전날 오전 빅토리아포크 국제공항 착륙 몇 분 전 회항했다.

조지 차람바 대통령실 대변인은 성명에서 "패스트젯 항공사를 통해 짐바브웨의 공항들을 겨냥한 민원 만만 폭파 위협을 주장하는 이메일을 확인했다"며 "예방 차원에서 대통령 전용기는 하라레로 기수를 돌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동으로 에어짐바브웨 항공기

는 승객들을 태운 채 빅토리아포크 공항에서 잠시 대기해야 했고, 케냐항공 항공기는 잠비아 리빙스턴으로 경로를 변경하는 등 일부 항공편이 우회하거나 이·착륙이 지연됐다.

또 음낭가과 대통령은 참석하려던 제56차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 회의와 남아프리카 국제재생에너지 회의 등에 불참했다.

한편 공항당국의 시설 점검 결과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 더 똑똑해진 AI... "5년 내 인간이 만든 모든 시험 통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인공지능(AI)이 5년 내로 인간이 치르는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황 CEO는 지난 2일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서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드는 데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CEO는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을 '인간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경우 5년 안에 이를 달성할 수 있다며 인간 수준의 인식을 가진 '범용 인공지능'(AGI)이 곧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컴퓨터 과학 업계에 내놓으면, 5년 안에 그 시험 전부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예컨대 지금 AI는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도 소화가 내과 같은 전문 의학 시험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5년 안에는 이를 비롯한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다만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AGI의 시대가 언제 올지에 대한 전망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상무지구 2,000평 실내스포츠공원

# 파라드시티

헬스

14일동안 CALORIE BAR lounge for Diet · Detox care DANIEDEL Skin & Body Aesthetic THE 14 DAYS BEAUTY SOLUTIONS

테니스

골프

062 374 0088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64 영무에다움 상가 2층

HDK Korea

(주)에이치디코리아는 DJI 컨슈머드론 전문판매 및 핸드헬드 전문판매 업체로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만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양한 DJI 드론 및 카메라, 짐벌 제품 등 체험 해보세요"

임동점

금호빌드점

광주 북구 금남로 24 | Tel. 062) 522-2000

광주 서구 군분2로 54 | Tel. 062) 350-8397